호남예술제 개막…새싹들의 군무

24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개막한 제58회 호남예술제 무용 경연에서 광주송원초 학생들이 발레 '꿈꾸는 소녀들'을 선보이고 있다. 무용·국악·음악·합주·미술·작문 등으로 나눠 진행되는 호남예술제는 다음달 24일까지 계속된다. 〈입상자 명단 12면〉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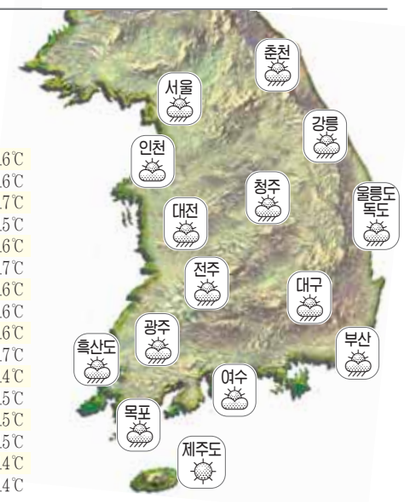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48분 해짐 19시 13분 달뜸 18시 44분 달짐 05시 05분

짙은안개

차차 흐려져 오후 한때 비 오는 곳 있겠다.

광 주	구름많고한때비	8/16℃
목 포	구름많고한때비	7/16℃
여 수	구름많음	10/17℃
나 주	구름많고한때비	5/15℃
완 도	구름많음	8/16℃
구 례	구름많고한때비	4/17℃
강 진	구름많고한때비	5/16℃
해 남	구름많고한때비	5/16℃
장 흥	구름많고한때비	5/16℃
순 천	구름많고한때비	4/17℃
영 광	구름많고한때비	6/14℃
진 도	구름많고한때비	6/15℃
전 주	구름많고한때비	6/15℃
군 산	구름많고한때비	6/15℃
남 원	구름많고한때비	3/14℃
흑산도	구름많고한때비	7/14℃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1.5m
먼바다	남서~서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1.0m
먼바다	서~북서	0.5~1.5m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감기지수
주의	높음	보통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1.5m
먼바다	서~북서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1.5m
먼바다	서~북서	1.0~2.0m

	밀물	썰물
목포	01:33 13:45	06:57 19:08
여수	08:38 21:09	02:30 14:36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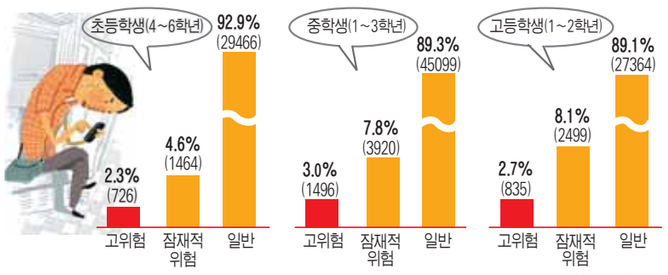
날 짜	26(금)	27(토)	28(일)	29(월)	30(화)	5/1(수)
날 씨						
최저/최고	6/18	6/22	9/23	11/19	13/20	8/18

스마트폰 중독 심각한 학생 3000명

광주교육청 넉달째 방치 물의

고위험군 즉각 치료 불구
학부모 동의 등 핑계
전문기관에 의뢰 안해

■ 광주지역 초·중·고 학생 스마트폰 중독 비율 단위:%(명)



〈자료: 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이 중증 스마트폰 중독 증세를 보이는 초·중·고 학생 3000여명을 파악하고도 넉달째 방치해 비난이 일고 있다.

2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광주지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전체 학생 15만9136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이용 습관을 조사한 결과, 이중 9.7%인 1만940명이 중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초등학생 726명(2.3%), 중학생 1496명(3%), 고등학생 835명(2.7%) 등 총 3057명(2.7%)은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한 고위험 사용자군이었다.

나머지 7.0%인 7883명(초 1464, 중 3920, 고 2499명)은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으로 조사됐다.

특히, 고위험군의 경우 중증 중독으로 전문기관에서 즉각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광주시교육청도 최근 광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고위험군 학생들은 광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광주인터넷중독대응센터 등 전문기관에서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같은 시교육청의 답변은 거짓으로 확인됐다.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문기관에 치료를 의뢰하자 않는 등 사실상 방치한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문기관 치료를 하려면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쉽지 않다"며 "교우관계 등의 문제를 우려해 학교 내에서 상담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고위험군의 경우 강압적이더라도 전문기관에서 즉각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희 광주인터넷중독대응센터 소장은 "고위험군이라면 최소 3년에서 최대 10년 간 스마트폰에 심하게 노출된 상태이며, 이들 대다수는 인터넷이나 게임 중독과 연계된 경우가 많다"며 "방치하면 일상생활 장애와 성적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알코올 중독 환자가 스스로 병원을 찾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강제로라도 전문기관에서 치료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도 "중독 여부를 판별하는 자가 진단에서 고위험군으로 나타났다면 곧바로 전문기관을 찾아 좀 더 정밀한 (공존질환)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이 검사에서도 고위험군으로 나오면 즉각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RDF시설' 어디로

주민 반발 난항 속 광역위생매립장 반입 감독 강화

광주시의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Refuse Derived Fuel·이하 RDF)사업이 주민 반발로 난항을 겪는 가운데 지역주민들이 RDF시설이 들어설 광역위생매립장 반입 감독을 강화하고 나섰다.

2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반경 2㎞내 주민 등으로 구성된 '광주 광역매립장 주민협의체'(이하 매립장 협의체)는 지난 21일부터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에서 배출 규정을 위반한 쓰레기 반입을 막고 있다.

해당 주민들은 쓰레기 매립장 반입 감독권을 갖고 있다.

매립장 협의체는 재활용이 가능하거나 규격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 음식물을 적재한 차량 등을 검사해 23일까지 모두 122대의 차량 중 56대(46%)의 출입을 저지했다.

협의체는 또 23일 새벽 6시부터 쓰레기 반입 여부 감독에 들어갔다.

반입이 저지된 쓰레기 차량이 감독이 소홀한 새벽 시간대를 이용해 다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협의체 설명이다.

최승진 매립장협의체 위원장은 "본래 상·하반기에 '주민감시요원'이 매립장에 들어오는 폐기물을 점검해 왔다"며 "RDF 시설 건립 항의 차원에서라도 무기한으로 '준법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오는 2015년 말까지 110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광주 남구 양과동 위생매립장 부지에 1일 800t의 생활쓰레기 처리가 가능한 RDF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만 65세 이상 폐렴
무료 예방 접종실시
광주 5개 자치구 보건소

광주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5개 자치구 보건소에서 만 65세 이상 16만 2921명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무료 예방 접종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폐렴구균은 급성 중이염, 부비동염, 패혈증, 뇌수막염, 폐렴 등의 병원체로, 최근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빈도가 증가해 예방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접종 대상은 1948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일반시민이 병원에서 폐렴구균 예방 접종을 받기위해선 10만~13만원의 접종비를 부담해야 한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이동중 통화 5배·밀폐 공간 7배

휴대전화 전자파 주의보

"덜 받으려면 귀에서 멀리"

휴대전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영향을 덜 받기 위해서 '통화 연결 중'에는 전화기를 귀에서 멀리 떨어뜨리는 것이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휴대전화 7종의 사용 환경에 따른 전자파 발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휴대전화의 전자파는 통화 연결 중 0.11~0.27 V/m(볼트퍼미터·전자파 세기 단위)로 대기 중이나 통화 중에 비해 더 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기 중'에는 0.03~0.14V/m, '통화 중'에는 0.08~0.24V/m로 나타났다.

V/m(볼트퍼미터)는 플러스·마이너스 양 전극이 1m 떨어져 있을 때 형성되는 전기장의 세기를 의미한다.

빠르게 이동 중이거나 밀폐된 장소에서 통화하면 전자파가 크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엘리베이터와 같이 밀폐된 장소에서 통화할 경우에 나오는 전자파는 0.15~5.01V/m로 개방된 공간(0.08~0.86V/m)보다 평균 7배 가량 전자파 강도가 급속히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하철과 같이 빠른 속도로 이동 중인 상태에서 통화할 경우 전자파는 0.10~1.06V/m으로 정지 상태(0.05~0.16V/m)보다 평균 5배 가량 전자파 강도가 증가했다.

밀폐된 장소에서는 전파 수신이 어려워 기기 출력이 증가하게 되고 이동하면서 통화하면 가장 가까운 기지국을 수시로 검색하기 때문에 전자파 강도가 세지는 것으로 환경과학원은 분석했다.

/연합뉴스